

2018 정시 원서접수 D-1... 합격 전략은

지원전형별 경쟁률 파악... 추가모집도 고려해야

군별 1곳씩 총 3개 전형에 지원
전문대학은 지원횟수 제한 없어
하위권 학과 경쟁률 높아질 수도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에 도전하는 마지막 기회인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6일~9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전문대 원서접수는 6일~16일까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별로 1곳씩 총 3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군별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지원이 금지된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이 아닌 총원합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시모집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의 전형방식은 대다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가 적용되므로, 올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수능에 따라



한 입시업체가 개최한 2018학년도 정시 실제점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2018 정시 배치 참고표를 펼쳐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신지원자보다는 하향 안전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판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과에서 경쟁률이 의외로 낮아지거나, 반대로 하위권 학과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지원자가 줄어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한 전형 경쟁률이 중요하다.

때문에 최근 5년간 지원하려는 전형의 경쟁률을 파악해 군별로 몇개의 전형을 고른 뒤 최종 지원할 전형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시 대학이나 전형 학과마다 별도

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성격과 무관하게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서를 잘 못 썼을 경우에는 전형료 결제 전이라면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

한 뒤 결제해야 한다.

대학별 정시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므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시모집 이월인원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복수 합격자들의 연세 이동이 발생해 진행되는 추가합격자 발표와, 모집 미달이 발생한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모집 기회도 있으므로 추가합격자나 추가모집 등 마지막 기회도 고려해 봐야 한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는 2월 6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고 7~9일까지 등록기간이다. 미등록 총원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 통보는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은 21일 마감된다.

전문대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등록은 2월 7일~9일까지이고, 총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10일~28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 어플라이와 유웨이 어플라이 두 곳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지원하려는 전형을 찾아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전에도 공통원서를 작성해 등록해 놓는게 좋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입구직자 90% “나이 때문에 취업 부담”

사람인 설문
82% “연령 때문에 취업 목표 바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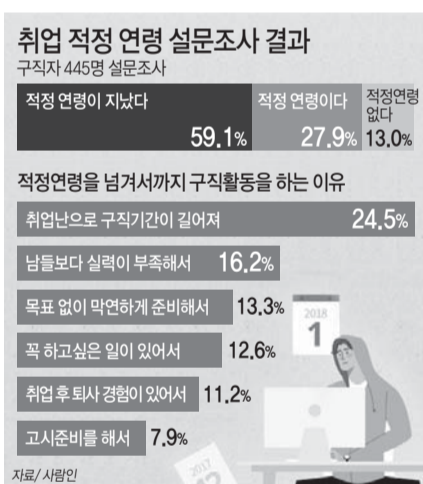
무술년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한 살 많아진 나이 때문에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에 적절한 연령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이인 신입 구직자 445명을 대상으로 ‘현재 신입으로 취업하기에 적정 연령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9.1%가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연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27.9%, ‘취업에는 적정연령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2.7%)이 남성(57.6%)에 비해 취업 적정연령이 지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적정연령을 넘겨서까지 구직활동을 하



고 있는 이유로는 ‘취업난으로 구직기간이 길어져서’(24.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들보다 실력이 부족해서’(16.2%), ‘목표 없이 막연하게 준비해서’(13.3%),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12.6%), ‘취업 후 퇴사 경험이 있어서’(11.2%), ‘공무원 등 고시준비를 해서’(7.9%),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7.6%)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나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8.1%에 달했고, 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81.9%나 됐다.

나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는 응답자들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직무로 변경’(56.1%, 복수응답)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취업 눈높이 낮춤’(54.5%), ‘많이 뽑는 직무로 변경’(30.5%) 등으로 나타났다.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52.2%는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질문으로는 ‘취업 공백기 동안의 경험’(5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이유’(50.3%)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선배직원보다 많은 나이에 대한 각오’(26.9%), ‘늦은 취업에도 낮은 연봉에 대한 우려’(22.8%), ‘졸업이 늦은 이유’(17.6%), ‘이전에 합격 또는 입사한 기업 여부’(14.5%) 등의 질문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성인 넷중 셋, ‘담뱃갑 경고그림 커져야’
흡연자를 포함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일 간행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흡연 경고그림(경고문구 포함)이 담뱃갑 포장지의 50%를 차지하는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대학생 10년 후 인생 목표 1위 ‘직업’

잡코리아-알바몬 설문
대학생 5.4% ‘목표가 없다’
취업여부에도 부정적 응답

대학생 5명 중 2명만 10년 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생 목표 1위는 ‘직업’이 꼽혔다. 목표가 없다는 대학생들은 10년 후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어떻게 돼야겠다는 목표

가 있는가’라고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보다 많은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아예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10년 후 목표는 대체로 직업과 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10년 후 목표의 종류(복수응답)를 묻은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직업에 관한 응답이 65.9%로 1위를 차지했다. ‘얼마만큼의 자산,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에 관한 것이 56.5%

로 2위를 기록했다. 자기개발(42.8%), 가족 및 결혼(27.3%), 외모 및 건강(27.3%)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는 화목한 가정(25.3%)이 꼽혔다. 2위는 소소한 행복(21.0%)이, 3위는 풍족한 자산(17.4%)이 각각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후 목표가 없다는 학생들은 대체로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1.7%였지만, ‘10년 후 인생목표가 없다’는 그룹(5.4%)에서는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11.3%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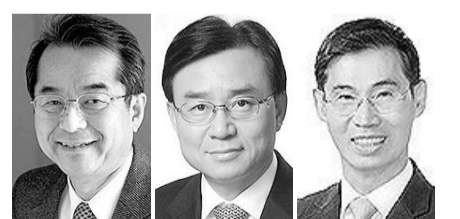
카이스트 ‘자랑스런 동문상’ 6명 선정

김명환 LG화학 사장 등 6명이 카이스트(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다.

카이스트 총동문회(회장 고정식)는 ‘2017년도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김병윤 KAIST 창업원장,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지난 1992년 제정돼 지금까지 26회에 걸쳐 9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신성철 총장이 지난 2010년 수상했고,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유훈 카이스트 교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승이 엔씨소프트 사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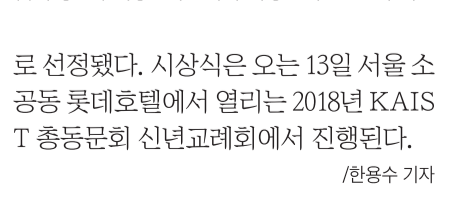
올해도 학술,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6인이 수상자



김명환 LG화학 사장



김병윤 KAIST 창업원장, 김명환 LG화학 사장,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